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상훈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장 (shlee@kiep.go.kr, 044-414-1282)

김혁중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hjkim@kiep.go.kr, 044-414-1166)

김홍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044-414-1278)

박은빈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ebpark@kiep.go.kr, 044-414-1046)



차 례

1. 회담 배경
2.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별 주요 논의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전쟁, 수출통제 등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양국은 2025년 부산 정상회담에 이어 2026년 5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안정화와 협력 확대를 모색함.
- ▶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양국이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구조적 갈등을 통제하고 경쟁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관계 프레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중국은 협력 중심의 안정, 절제된 경쟁, 통제 가능한 갈등, 평화적 공존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은 충돌 방지와 위기관리에 협력하되 전략경쟁은 지속하는 관계 안정화에 공감대를 형성함.
 -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나 구조적 갈등 해소보다는 경쟁을 전제로 갈등을 관리하는 '관리된 경쟁(managed rivalry)'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성격이 강함.
- ▶ 미·중 양국은 경제·무역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합의하였으나, 성과는 거래 중심의 제한적 협력에 머물렀음.
 - 양국은 농산물 교역 확대, 항공기 구매, 에너지 협력,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등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또한 양국은 2025년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일부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수출통제 조치 유예에 관한 합의를 지속 이행하기로 하면서 양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임.
 - 새롭게 설치되는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는 양국 간 경제관계와 무역 및 투자 분쟁 관리에 초점을 둔 제한적 협의체 성격이 강하며, 과잉생산, 산업보조금, 환율, 시장개방 등 기존의 핵심 경제 현안들은 논의되지 않음.
- ▶ 미·중 간 기술안보 분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AI·핵심광물을 둘러싼 경제안보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의 가장 민감한 핵심 변수로서 향후 전략적 안정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
- ▶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의 안정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한국에 긍정적이나, 기술·경제안보 분야의 경쟁이 지속되는 만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상시 대응과 일관된 원칙에 기반한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회담 배경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으며(2026. 5. 14.), 정상회담 전 무역전쟁을 비롯한 경제 문제와 대만 및 미-이란 전쟁과 같은 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기대되었음.¹⁾
- [경제] 트럼프 2기 출범 후 재점화된 미·중 무역전쟁은 지난 부산 정상회담(2025. 10. 30.) 이후 임시 봉합된 상황이었으며, 이번 회담에서는 유예되었던 통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안보] 전통적으로는 북핵 억제 및 대만 관련 이슈가 주된 의제였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러-우 전쟁 및 미-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대만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글로벌 이슈]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와 거시경제 안정, AI 안전’ 등 포괄적인 글로벌 의제를 다루었던 것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이슈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음.
 - Chatham House는 이번 회담을 미·중 관계의 근본적 정상화보다는 미·중 간 전략경쟁을 관리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된 경쟁(managing US-China rivalry)’ 차원의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함.²⁾

표 1.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역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행정부	일자	주요 의제
트럼프 1기	2017. 4(플로리다)	· 경제 이슈(비시장 경제정책, 공정한 경쟁), 한반도 비핵화, 해양 안보
	2017. 7.(G20)	·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통상 및 시장 접근
	2017. 11.(베이징)	· 한반도 비핵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무역 불균형, 마약 및 이민
	2018. 12.(G20)	· 무역전쟁 및 중국의 경제정책(강제 기술이전, 지적권 등), 한반도 비핵화
	2019. 6.(G20)	· 무역전쟁(관세 유예, 중국의 농산물 구매), 화웨이 제재 완화
바이든	2022. 11.(G20)	· 핵 억제(러-우 전쟁), 대만, 글로벌 의제(기후, 거시경제 안정, 보건·식량 안보)
	2023. 11.(APEC)	· 미·중 경쟁 인식 교환, 일부 협력(군사소통, 마약, 인공지능 안전 등), 대만
	2024. 11.(APEC)	· 양자 관계 인식 교환, 마약 퇴치, 인공지능 안전 및 기타 글로벌 과제, 대만
트럼프 2기	2025. 10.(APEC)	· 미·중 간 관세 및 수출통제 조치 등 일부 유예
	2026. 5.(베이징)	· 관세 합의 연장 및 협의 채널 신설

자료: 역대 백악관 홈페이지 통해 저자 정리.

1) CSIS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미국이 중시하는 경제적 실익 중심의 5B(Boeing, Beef, Beans, Board of Trade, Board of Investment)와 중국이 강조하는 전략·안보 사안인 3T(Taiwan, Tariffs, Technology)로 요약한 바 있음. CSIS(2026. 5. 7.), “Press Briefing: Previewing the Trump-Xi Summit,” https://www.csis.org/analysis/press-briefing-previewing-trump-xi-summit?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 5. 14.).

2) Max Yoeli(2026. 5. 13.), “Trump-Xi summit will be about managing US-China rivalry, not resolving it,” Chatham House, https://www.chathamhouse.org/2026/05/trump-xi-summit-will-be-about-managing-us-china-rivalry-not-resolving-it?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 5. 19.).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전쟁과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2025년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갈등은 임시 봉합된 상황이었음.

- [관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조치는 부산에서의 합의를 통해 20%에서 10%로 인하되었지만, 해당 관세 정책의 기반이 되었던 IEEPA 기반 관세 조치가 2026년 2월 무효화되어 미국 측 레버리지가 다소 약화된 상황이었음.
- [수출통제] 미국의 거래 제한 목록(Entity List) 확대 조치로 인해 촉발된 미·중 간 수출통제 조치는 부산에서의 합의를 통해 임시 중단된 상황이었으며, 이후 미국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보다는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내재적 역량 강화를 추구함.
 - [미국의 대내정책] 부산에서의 합의 이후 미국 정부는 제232조 핵심광물 조사 개시(행정명령 14272)와 함께 3개 기업(Vulcan Elements, 고려아연, USA Rare Earth)의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함.
 - [미국의 대외정책] 또한, △ 팩스 실리카(Pax Silica)와 같은 첨단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다자 협의체 개설, △ 핵심광물에 대한 양자 합의(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 수출 입은행을 통한 지원, △ 개발금융공사를 통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적극적 대외정책을 추진함.³⁾
- [합의 이행] 정상회담 이후에도 넥스페리아의 중국 내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등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슈도 존재했으나⁴⁾ △ 대두 수입⁵⁾, △ 펜타닐 통제 강화⁶⁾, △ 미국의 제301조 해운 및 조선산업 조치에 대한 중국 측 보복조치 중단⁷⁾ 등 핵심 사안에서는 실질적인 합의 이행이 이루어졌음.

표 2. 부산 APEC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주요 논의 결과

분야	미국 측 행동	중국 측 행동
관세 및 시장개방	· IEEPA 대중국 관세⁸⁾를 10%p 인하 · IEEPA 상호관세⁹⁾는 10%로 유지 · 2025년 11월 29일 만료될 제301조 관세 배제 조치를 연장	· 미국에 대한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 시행 · 2025년 3월 4일 이후 취해진 보복관세 및 비관세 조치(수출통제 등) 중단 · 미국산 대두 수입: 2025년 마지막 2개월간 12MMT(million metric ton) 및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25MMT 이상 수입 · 미국산 수수 및 목재 구매 재개 · 시장 기반 관세 배제 조치 연장(2026년 말까지)

3) Shagina, Maria(2026. 1. 29.), "US critical-minerals diplomacy: from America-First deals to Pax Silica,"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https://www.iiss.org/online-analysis/online-analysis/2026/01/us-critical-minerals-diplomacy-from-america-first-deals-to-pax-silica/>(검색일: 2026. 5. 27.).

4) 다만, 이는 중국 왕톈의 자회사였던 넥스페리아의 통제권을 네덜란드 정부가 가져가면서 발생했던 분쟁이라는 점에서 미·중 합의만으로 온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음.

5) Reuters(2026. 1. 20.), "China hits 12 million ton US soybean target pledged in trade truce,"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hits-12-million-ton-us-soybean-target-pledged-trade-truce-2026-01-20/>(검색일: 2026. 5. 27.).

6)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5. 11. 10.), 「商务部等5部门关于调整《向特定国家(地区)出口易制毒化学品管理目录》《特定国家(地区)目录》的公告」,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df629a8dc2244bc4a57f3656618bfb5f.html(검색일: 2026. 5. 27.).

7) 人民日报(2025. 11. 11.), 「中方暂停对美船舶收取船舶特别港务费」,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df629a8dc2244bc4a57f3656618bfb5f.html(검색일: 2026. 5. 27.).

분야	미국 측 행동	중국 측 행동
수출통제	· Entity List 확대 조치(계열사 규칙) 중단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및 관련 조치(2025. 10. 9. 발표) 중단 · 미국 최종사용자 및 그들의 공급자에게 △ 희토류, △ 갈륨, △ 게르마늄, △ 안티모니, △ 흑연 일반 허가 부여(사실상 2023년 이후 취해진 중국의 조치 제거) · 넥스페리아의 중국 내 시설에서 거래 정상화를 위한 조치 시행
해운 및 조선산업 규제	· 제301조 해운 및 조선산업 규제 중단	· 미국의 제301조 해운 및 조선산업 규제에 따른 보복 조치 제거
기타		· 반도체 공급망 내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 및 반덤핑 조사 종료

자료: The White House(2025. 11. 1.),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trikes Deal o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China,"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trikes-deal-on-economic-and-trade-relations-with-china/>(검색일: 2026. 5. 27.).

2.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별 주요 논의 내용

가. 거시경제 및 통상

- [대화 채널 신설]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의 핵심이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및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신설임을 명시함.¹⁰⁾
- 그리어 USTR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진행한 CBS 인터뷰를 통해 과거의 임시방편적(ad hoc) 대응에서 벗어나 미·중 경제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신설했다고 강조함.¹¹⁾
 - 무역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경제관계 관리 및 관세를 논의하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품목(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 등)은 제외하고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 의료기기, 소비재 등 비민감성 품목(non-sensitive goods)의 교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
 - 투자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투자 정책의 핵심 이슈를 논의하며, 특정 투자 프로그램이라기보다 문제 발생 시 분쟁 조정 채널 역할을 수행할 예정
- 중국 상무부는 미·중 경제무역 협상에 관한 해설 자료를 통해 이러한 대화 채널이 위기대응식 관리에서

8)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기반의 행정명령 14195를 통해 불법 마약 및 이민 유입 시정이라는 명분으로 취해진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를 의미함.

9) IEEPA 기반의 행정명령 14257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결을 명분으로 취해졌던 관세 정책을 의미함.

10) The White House(2026. 5. 17.),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Deals with China, Delivering for American Workers, Farmers, and Industry,"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5/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ecures-historic-deals-with-china-delivering-for-american-workers-farmers-and-industry/>(검색일: 2026. 5. 27.).

11) CBS News(2026. 5. 17.), "Face the Nation: Interview with USTR Jamieson Greer," [Video].

제도화된 관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구체적인 구조·기능·운영 방식은 후속 협의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힘.¹²⁾

■ [관세]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서는 관세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으나 중국 상무부는 2025년 10월 미·중 정상회담 시 합의된 관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후속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양측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위한 긍정적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관세를 논의하지 않았으나, IEEPA 대법원 판결 이후 약 10%p 인하(펜타닐 관세)되었던 대중국 관세율을 미국은 2025년 10월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중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힘.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 조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그리어 대표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될 경우 관세 인상, 서비스 수수료 부과, 쿼터 도입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시사함.

- 중국 상무부는 2025년 10월 부산 합의의 연장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일부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시행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잠정 유예했다고 밝힘.

○ 중국 측은 향후 어떠한 이유로 대중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합의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함.¹³⁾

■ [교역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농축산물 교역 확대, 항공기 구매, 쇠고기 수입 제한 해제 등 중국 측이 이행하기로 한 내용을 구체적인 성과로 제시한 반면, 중국 상무부는 평등한 협상을 거쳐 농산물 등 양방향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밝히며 각국이 합의한 조치를 언급함.

- [농축산물]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가금류의 대중 시장 접근 재개와 중국산 유제품·수산물의 대미 자동 역류 해제 등 양방향 비관세 장벽 완화를 논의함.

○ 백악관은 중국이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했으며, 이와 관련해 그리어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기존 대두 구매 합의(2025. 10.)에 더해 밀, 곡물, 유제품 등 농축산물 전반으로 구매가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 상무부는 국내 수급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포함한 양방향 교역을 확대(각각 300억 달러 이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나 명확한 이행 시한은 제시하지 않음.

○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측은 중국산 유제품 및 유제품 함유 식품에 적용해 온 자동 역류 조치 해제, 중국산 '배지 분재(介质盆景, 배양토가 포함된 화분식 분재)'에 대한 시험적 수입 허용, 중국산 수산물 3종에 대한 자동 역류 조치 해제 등 대미 시장 접근에 합의함.

○ 중국 상무부 자료에서 언급된 중국 측 합의 내용은 미국 쇠고기 수출 시설의 대중 수출 등록(license)

12)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6. 5. 20.), 「商务部美大司负责人解读中美经贸磋商初步成果」, https://www.mofcom.gov.cn/syxwfb/art/2026/art_3e89743a8d5d4a95bccdda685830afbd.html(검색일: 2026. 5. 26.).

13)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6. 5. 20.).

재개 및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수입 제한 해제를 통한 미국산 가금류 제품 수입 재개이며, 이를 통해 양국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함.

- [항공기] 중국 측은 미국의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하였고, 미국은 중국이 수입한 항공기의 원활한 운영 유지·보수를 위해 항공기 엔진 및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함.
 - 이 내용은 양국이 공식 확인한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서 에어포스원 내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관계 개선 및 세부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최대 750대(GE 항공기 엔진 400~450기 규모 동반 수출 효과 언급) 규모로 주문을 확대할 수 있는 포괄적 약속을 확보했음을 밝힘.¹⁴⁾
 - 본 건은 10년 만에 재개된 중국 정부 차원의 대규모 미국산 항공기 수주이나, 과거 중국의 항공기 구매 약속 미이행 전례 및 이번 보도문 내 구체적 이행 시한 미비 등을 근거로 실제 이행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함.¹⁵⁾
 - 이번 보잉 200대 구매 합의는 중국의 일방적 양보라기보다는 대형 항공기 수요(중국)와 수출시장 확보(미국)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호 부합한 결과로 풀이됨.
- [결제 규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금융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부당하게 배척당해(blackballed) 왔음을 언급하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결제 시장 진입 및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고 밝힘.¹⁶⁾
- [에너지 수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미국 텍사스, 루이지애나, 알래스카 지역의 원유 기지에 중국 측 수송선단을 파견하여 원유 선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언함.
 -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4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 폭스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에너지 구매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중국 결제 시장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했으나, 중국 측 보도문에는 언급되지 않음.

표 3.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한 양국 발표 내용 비교(경제·통상 분야)

미국 측 발표(Fact Sheet)	중국 측 발표	비고
·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설립 합의	·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설립 합의(중국 외교부)	· (中) 상호 간 관세 인하를 하에서 양방향 무역 확대 촉진
· 희토류 및 핵심광물의 공급망 부족, 희토류 생산 및 가공 장비, 기술 판매 금지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 해소 약속	-	· (中) 공개 발표 없음
·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승인	·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예정, 미국은 엔진과 관련 부품을 충분히 공급할 것에 합의(신화사)	· (中) 미국의 항공기 엔진 및 부품 수출 명시
· 미국산 농산물 2026~28년 연간 최소 170억 달러 구매	· 농산물 시장 접근에 관한 상호 우려 해결 및 무역 확대(중국 외교부) · 상호 농산물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합의 도출(신화사)	· (中) 금액 및 대두 품목 미언급

14) Reuters(2026. 5. 15.), "Trump says China to buy 200 Boeing jets, order could rise up to 750."

15) Bloomberg Television(2026. 5. 15.), "Boeing Gets China Deal at Trump's Visit, With Many Questions," [Video].

16) Fox News(2025. 5. 15.), "Donald Trump exclusive interview on Hannity." [Video]; 중국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자국 앱 중심의 '무현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신용카드 결제에 어려움이 있음.

미국 측 발표(Fact Sheet)	중국 측 발표	비고
· 미국산 쇠고기의 중국 시장 접근 복원(400곳 이상 등록 갱신)	· 425개 미국 쇠고기 생산기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양국 간 쇠고기 무역 회복(인민일보 해외판)	-
· 중국의 미국산 가금류 수입 재개	· 미국 내 특정 주의 대중 가금류 수출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 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신화사)	· 수입 재개에 대한 언급은 없음

자료: The White House(2026. 5. 17.),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Deals with China, Delivering for American Workers, Farmers, and Industry";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6. 5. 15.), 「王毅向媒体介绍中美元首会晤情况和共识」; 人民日报海外版(2026. 5. 25.), 「走出一条新时代大国正确相处之道」; Xinhua(2026. 5. 20.), "China's commerce ministry elaborates on outcomes of China-U.S. economic, trade consultations"; Xinhua(2026. 5. 17.), "China, U.S. achieve positive outcomes in economic, trade consultations: ministry."

나. 기술안보 및 핵심 공급망: 희토류 및 AI

■ 미·중 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양국이 논의 결과로 발표한 내용에는 견해 차이가 존재함.

- 백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① 이트륨, 스칸듐, 네오디뮴, 인듐을 포함한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의 공급 부족, ② 희토류 생산 및 가공 장비, 기술의 판매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힘.¹⁷⁾
- 반면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서로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중국이 미국 측의 일방적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는 백악관의 발표에 분명히 선을 그음.¹⁸⁾
 - 중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핵심 광물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합법적인 민용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중국의 법적 틀 안에서 운영하겠다는 점을 강조
 - 그러면서도 미국과 협력하여 양국 기업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함.
-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뚜렷한 견해 차이가 드러났는데, 미국은 자국의 산업적 이익을 위해 중국의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홍보하는 반면, 중국은 자국의 법적 권한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용 수출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함.

■ 미·중 양국은 AI 가드레일 협력에 대해 논의한 후 정부 간 대화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반면, 양국 첨단기술 경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반도체는 주요 의제로 다루이지 않았음.

-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인터뷰에서 신기술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가운데 AI 가드레일 마련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으나, 정부 공식 문건에는 언급되지 않음.¹⁹⁾

17) The White House(2026. 5. 17.).

18)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6. 5. 20.).

19) Miranda Nazzaro(2026. 5. 15.), "Trump says he discussed AI guardrails with Xi," The Hill, <https://thehill.com/homenews/administration/5880013-donald-trump-xi-jinping-china-summit-ai-guardrails/>.

-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양국이 AI 관련 대화를 통해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가 첨단 AI 모델을 군사와 테러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범 사례(AI Best Practices)’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²⁰⁾
-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인공지능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자 간 AI 관련 대화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음.²¹⁾
- 다만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의 강국인 양국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사회 발전과 국제 사회 공동의 복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 반도체 이슈와 관련하여 그리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는 주요 의제가 아니었으며, H200 수입 여부는 중국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언급함.²²⁾
- 미국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대표단 합류를 통해 중국의 AI 반도체 구매 논의를 유도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인터뷰에서 중국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구매보다 자체 개발을 우선하고 있다고 밝힘.
- 반면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해제 논의 여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음.

표 4. 과거 미·중 정부 간 AI 협의

시기	지역	주요 내용
2023. 11. 15	미국 샌프란시스코	-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국 간 AI 안전성 강화 협력에 공식 합의하며 대화 채널 구축의 기틀 마련
2024. 5. 14	스위스 제네바	- 미·중 간 AI 관련 정부 간 첫 회의 개최 - AI 관련 위험성 및 글로벌 거버넌스,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AI 촉진 방안 논의

자료: The White House(2023. 11. 15.), "Readout of President Joe Biden's Meeting with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11/15/readout-of-president-joe-bidens-meeting-with-president-xi-jinping-of-the-peoples-republic-of-china-2/>; 中国政府网(2024. 5. 16.), "China, U.S. hold first meeting of inter-governmental dialogue on AI," https://english.www.gov.cn/news/202405/16/content_WS664579edc6d0868f4e8e7268.html.

다. 대만 및 지정학적 현안

-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양국 간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의제로 다루어졌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를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를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거래적인 접근 방식을 보임.²³⁾

20) Evelyn Cheng(2026. 5. 14.), "U.S. can hold AI talks with China because 'we are in the lead,' Bessent tells CNBC as nations plan safety protocol," CNBC, <https://www.cnbc.com/2026/05/14/us-china-ai-rules-bessent-us-lead.html>.

2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6. 5. 19.), 「2026年5月19日外交部发言人郭嘉昆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mfa.gov.cn/web/fyrbt_673021/202605/t20260519_11913599.shtml(검색일: 2026. 5. 22.).

22) Trevor Hunnicutt(2026. 5. 15.), "Chip export controls not major topic in China talks, US trade rep Greer says,"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p-export-controls-not-major-topic-china-talks-us-trade-rep-greer-tells-2026-05-15/>.

23) CSIS(2026. 5. 15.), "Unpacking President Trump's Visit to China," <https://www.csis.org/analysis/unpacking-president-trumps-visit-china-state-play>(검색일: 2026. 5. 28.).

- 중국 측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사안으로 규정하며, 이를 오판하거나 잘못 다룰 경우 양국 관계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²⁴⁾
 -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양국 간 가장 큰 공통 이해관계로,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3대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함.²⁵⁾
 -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대만 관련 내용이 완전히 배제되었는데, 이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분석됨.²⁶⁾
 - 다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별도 발표를 통해 대만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공식화함.²⁷⁾
 - 전략적 모호성 및 공식 언급 자제: 백악관의 초기 발표문과 팩트시트에서는 대만 관련 내용이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이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분석됨.
 -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독립을 위한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하며, “9,5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실용적 입장을 보임.²⁸⁾
 -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전 행정부와 달리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함.²⁹⁾
 -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경제관계와 직접 연계하고 있으며, 최근 무역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 협력, 미·대만 교역, 무기 판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대만 사안이 무역 관계의 전제 조건처럼 규정되는 경향을 보임.³⁰⁾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두 정상이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한 점은 이번 회담에서 주요 지정학적 현안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음을 시사하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³¹⁾
- [미-이란 전쟁 및 중동 정세] 양국 정상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반대 및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재개방 필요성에 합의하였으며, 또한 해협 통행에 대한 부당한 통행료 징수 체제에도 반대 의사를 같이함.³²⁾

2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6. 5. 15.), 「王毅向媒体介绍中美元首会晤情况和共识」, https://www.mfa.gov.cn/web/wjzbzhd/202605/t20260515_11911513.shtml(검색일: 2026. 5. 21.).

25)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6. 5. 15.).

26)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6. 5. 18.), “China and the U.S. Agreed to ‘Strategic Stability’ in Beijing. They Don’t Define It the Same Way,” <https://www.cfr.org/articles/china-and-the-u-s-agreed-to-strategic-stability-in-beijing-they-dont-define-it-the-same-way>(검색일: 2026. 5. 28.).

27) CSIS(2026. 5. 20a), “A Summit of Equals,” <https://www.csis.org/analysis/summit-equals>(검색일: 2026. 5. 28.).

28) CSIS(2026. 5. 15.).

29) CSIS(2026. 5. 20a).

30) BBC (2026. 5. 15.), 「트럼프, CEO들과 중국 찾았지만... ‘빅딜’ 거의 없었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q8pevzwv5o>(검색일: 2026. 5. 27.).

31) BBC(2026. 5. 15.),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끝났나... ‘한반도’, ‘북한’ 언급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lyp1n5vp5yo>(검색일: 2026. 5. 27.).

32) The White House(2026. 5. 17.).

- 미국 측은 중국의 무기 공급 중단 약속과 평화 중재 제안을 언급하며 중국이 이란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함.³³⁾
- 반면 중국은 무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근본 해결책으로 강조하고 있어 실제로 중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불분명함.³⁴⁾
- 중국은 미·이란 양측이 핵 문제를 포함한 갈등을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휴전을 유지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조속히 재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함.³⁵⁾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조속한 종식을 희망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³⁶⁾
 - 미·중 양측은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 협상을 중재해 왔음을 확인하고 향후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으나,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함.
- [한반도 문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식적으로 확인함.³⁷⁾
 - 중국 관영 매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백악관의 초기 발표문에서도 한반도 관련 언급이 배제되는 등 양국 간 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³⁸⁾

3. 평가 및 시사점

가. 미국 측 평가

-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역사적 합의(historic deals)’라고 주장하며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 측의 주요 성과를 강조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혹은 서비스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기업인 30여 명³⁹⁾이 동행했다고 밝히면서 “중국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대규모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언⁴⁰⁾

33) BBC(2026. 5. 15.), 「성대한 환영 속 이뤄진 트럼프의 방중, 민감한 현안은 여전히 남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lyp1wdx9k7o>(검색일: 2026. 5. 27.).

34) CSIS(2026. 5. 15.).

35)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6. 5. 15.).

36) 人民日报(2026. 5. 16.), 「构建'中美建设性战略稳定关系'是最重要政治共识——中美元首会晤是一次历史性会晤, 达成丰富成果」, <http://politics.people.com.cn/n1/2026/0516/c1001-40720850.html>(검색일: 2026. 5. 29.).

37) The White House(2026. 5. 17.).

38) BBC(2026. 5. 15.),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끝났나... ‘한반도’, ‘북한’ 언급도」.

39) 일론 머스크(Tesla, SpaceX), 젠슨 황(NVIDIA), 팀쿡(Apple), 켈리 오트버그(Boeing), 래리 핑크(BlackRock), 스티븐 슈워츠먼(Blackstone), 제인 프레이저(Citigroup), 데이비드 솔로몬(골드만삭스), 크리스티아노 아몬(Qualcomm), 라이언 맥아너니(Visa), 마이클 미바흐(Mastercard), 산제이 메호트라(Micron) 등.

40) Fox News(2025, 5. 15.).

- 백악관은 미국 노동자, 농민, 산업을 위한 합의였음을 언급하며 대화 채널 신설, 항공기, 농축산물 구매 및 비관세 장벽 해제 등 교역 확대 성과에 대해 명시함.

■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은 반응이 엇갈림.

- [공화당]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는 합의를 환영했으나, 일부는 중국의 약속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국에 대한 미국 농산물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R-MT)은 ‘미국에 위대한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중국과 디커플링하지 말고(we not decouple) 관여(engage)해야 하며,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이 중요하다”고 발언⁴¹⁾
 -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R-NE)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의 큰 구매자라는 점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고 보며, 「MARKET(Moving Away from Risk to Key Export Target Act) Act」를 발의하여 외국 적대국의 농산물 수출 의존도를 매년 파악하고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⁴²⁾
 - 존 몰레나르(R-MI) 하원 중국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위원장은 “무역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이 미국의 기술 우위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군사·대만 문제에서는 강경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⁴³⁾
- [민주당]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이번 합의를 실질적 성과가 아닌 정치적 이벤트로 규정했으며 중국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많이 양보했다는 평가 중심임.⁴⁴⁾
 - 진 샤힌(D-NH) 상원 외교위 간사와 9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군사적 압박, 기술·경제 리더십, 인권, 대만 억지력 등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목표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⁴⁵⁾
 - 척 슈머 상원위원(D-NY)은 5월 18일 상원 발언에서 트럼프가 중국 방문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얻어 오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대만 지원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흐리게 만들고 팬타닐 문제에서 의미 있는 중국의 행동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중국의 미국 농지 소유 문제, AI·반도체 경쟁, 미국 제조업 보호 문제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발언
 - 중서부 농업 중심 주(州)의 손텔 브라운 하원의원(D-OH)은 농산물 시장 접근은 필요하지만 중국 의존과 불공정 경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 제조업 중심 주(州)의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의원(D-MI)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시장 접근 제한이 해결되기 전에는 관세 철폐 등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되며 제조업과 국내 핵심광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산업계]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된 산업의 경우 이번 회담을 중국 시장 재진입과 수출 회복의 긍정적 계기로 평가하면서도 쇠고기 수출 시설 등록 미회복 문제와 농산물 구매 약속의 구체화

41) Steve Daines(2026. 5. 15.), “Daines Reacts to Trump’s Historic China Visit: A Great Moment for America.”

42) Inside U.S. Trade(2026. 5. 20.), “Senate bill targets U.S. agricultural export dependence on China.”

43) Select Committee on the CCP(2026. 5. 13.), “Moolenaar: “Trump Administration Comes In From a Position of Strength” Ahead of Meeting With Xi.”

44) The Senate Democratic Caucus(2026. 5. 18.), “Leader Schumer Floor Remarks Calling Out Trump For Failing To Protect American Interests At China Summit.”

45)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2026. 5. 15.), “Senate Foreign Relations Democrats Statement on Trump-Xi Summit.”

등 후속 협의와 실제 수출 실적 개선이 관건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US Meat Export Federation)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 시장 접근이 우선 의제로 다뤄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쇠고기 수출 시설 등록(license) 갱신(425곳 5년 등록 연장)’은 대중 수출의 핵심 진전이라고 평가
 - USMEF는 38개 시설이 여전히 등록 만료 상태임을 언급하며 중국의 해관총서(海關總署)와 USTR의 추가 협의 필요성을 강조함.
- 보잉(Boeing) 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 시장 재개방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히며 200대 초기 구매에 더해 추가 약속에 대한 기대 표명⁴⁶⁾
- 미국농업연맹(AFBF: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관계 강화와 잠재적인 농산물 구매 약속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재개된 대화가 꾸준한 수출 실적과 시장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힘.⁴⁷⁾
 -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이 정점인 2022년 409억 달러에서 2025년 170억 달러로 급감했음을 강조하며 이는 중국이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로 수출을 우회하면서 대중 대두, 곡물, 단백질 시장을 잠식했다고 언급

■ [전문개]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구조적 갈등을 해소한 대타협이라기보다는 농산물, 항공기 구매 등 제한적 성과와 무역·투자 협의회를 통해 긴장 악화를 관리하는 수준의 합의였으며, 관세·희토류·AI 등 핵심 쟁점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

- CSIS는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기존의 경제적 데탕트(Détente, 긴장 완화)를 유지하고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는데 이를 달성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대규모 합의보다는 소규모 타협(농산물, 항공기 구매 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⁴⁸⁾
 - 관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없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USTR이 진행 중인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 관련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에 따른 새로운 관세나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
 - 희토류 수출통제나 AI 칩(엔비디아 H200 구매 허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양국은 추가적인 신규 조치 없이 현상 유지(status quo)를 했다고 평가했으며 당분간은 수출통제를 외교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Bloomberg에 따르면 희토류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으나, 수출통제 유예가 11월까지로 제한적이고 디스프로슘·터븀 등 중희토류의 대체 공급망 구축이 지연될 가능성(2035년까지 비중국 공급이 전체 수요의 20% 미만에 그칠 전망)이 커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음.⁴⁹⁾

46) OPB(2026. 5. 16.), “Trump and Boeing say China agreed to buy 200 aircraft, reopening a key market for the US planemaker.”

47)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2026. 5. 14.), “Reviewing U.S. Agricultural Trade With China.”

48) CSIS(2026. 5. 20.), “EST Rapid Roundup: Unpacking the Trump-Xi Summit Pt.1 - Trade and Investment.”

49) Bloomberg(2026. 5. 15.), “Trump-Xi Summit: Rare Earth Tensions Threaten \$1.2 Trillion US Industry.”

- 웬디 커틀러(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부소장)는 양국이 무역위원회를 신설하여 300~5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한정된 관리무역(managed trade) 방식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미·중 교역 안정화 장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⁵⁰⁾
- CFR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 간 구조적 갈등을 해소한 합의라기보다 무역·투자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management device) 정도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미국은 단기적 상업 성과를, 중국은 장기적 전략 안정과 핵심 이익 존중을 각각 부각한 것으로 분석함.⁵¹⁾
- 미 의회 전문 언론 Roll Call은 이번 정상회담을 중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성과가 부족했고, 유가·이란 전쟁·경제 불안에 대한 유권자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반전시키지 못한 회담으로 평가함.⁵²⁾

나. 중국 측 평가

■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미·중 관계를 이끌어 갈 새로운 전략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성과보다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建设性战略稳定关系)’ 구축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미·중 간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 확립, 대만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레드라인 제시,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안정적 유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확대, 상호 관심사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합의 달성,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소통과 조정 강화 합의 등을 이뤄낸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방문이라고 평가함.⁵³⁾
- 특히 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미·중 양국이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建设性战略稳定关系)’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주목했는데, 이러한 관계 설정은 향후 3년 이상의 미·중 관계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의 핵심 원칙은 △ 협력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안정, △ 경쟁을 절제한 건전한 안정, △ 이견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상시적 안정, △ 평화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안정에 있으며, 전면적인 대결은 지양한다는 의미를 지님.

■ 중국 내 관영매체 및 전문가들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 회담으로 규정하고 대국 간 갈등과 함정을 넘어 신형 대국 관계 모델을 제시했으며,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미·중 간 전략적·건설적 안정 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함.

- 인민일보는 미·중 양국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그리고 공영협력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투키디데스

50) Reuters(2026. 5. 13.), “Trump, Xi to weigh tariff cuts on \$30 billion of imports in managed trade push.”

51)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6. 5. 18.).

52) Roll Call(2026. 5. 18.), “Trump’s trip to China doesn’t move the needle on low approval ratings.”

53)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26. 5. 15.), 「习近平同美国总统特朗普在中南海小范围会晤」,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605/content_7068921.htm(검색일: 2026. 5. 19.).

의 함정'이라는 역사적 함정을 극복하고 신형 대국 관계를 향한 길을 열어 갈 수 있다고 평가함.⁵⁴⁾

- 또한 미·중 간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여 세계에 더 많은 평화와 번영,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함.⁵⁵⁾
- 가오페이 외교학원 원장은 '건설적 전략 안정'을 최대 성과로 평가하며, 단순한 긴장 완화가 아닌 장기적 프레임을 마련한 것으로, 전면적 우호를 기대하지도, 대결로 치닫지도 않으며 경쟁·협력·분쟁을 통제 가능한 틀 안에 담았다고 평가함.⁵⁶⁾
-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원장은 새로운 양국 관계에서의 핵심은 향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협력의 파이를 키우고, 경쟁은 선의적이어야 하며, 분쟁은 상시 통제하고, 상시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해 충돌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함.⁵⁷⁾

다. 시사점

■ [미·중 관계 재정립 및 관리체제 구축]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이 제시한 새로운 관계 프레임으로 미·중 간 구조적 갈등을 통제하고 관리된 경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모두 전략적 시간을 확보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중국이 제시한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를 미국이 수용하면서 양국 간 새로운 관계 프레임을 구축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⁵⁸⁾
 - 중국은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를 향후 최소 3년 이상 미·중 관계를 이끌 전략적 지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협력 중심의 안정, 절제된 경쟁, 통제 가능한 갈등, 평화적 공존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함.
 - 이는 과거 중국이 주장해 온 '신형대국관계'의 현실주의적 버전으로 볼 수 있으며,⁵⁹⁾ 전략경쟁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경쟁을 전제로 충돌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임.
 - 특히 중국은 미국이 이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중국을 미국과 동등한 전략적 행위자로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추가 제재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서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를 위반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음.
 - 다만 '건설적·전략적 안정'을 바라보는 양국의 지향점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미국은 경제적 안

54) 人民日报 (2026. 5. 27.), 「以建设性战略稳定构建新时代中美关系」, 中国新闻网, <https://www.chinanews.com.cn/ll/2026/05-27/10629281.shtml>(검색일: 2026. 6. 2.).

55) 人民日报海外版(2026. 5. 25.), 「走出一条新时代大国正确相处之道」, http://www.china.com.cn/opinion2020/2026-05/26/content_118514478.shtml(검색일: 2026. 5. 28.).

56) 学习时报(2026. 5. 22.), 「中美关系的新定位: 构建建设性战略稳定关系」, https://theory.gmw.cn/2026-05/22/content_38781318.htm(검색일: 2026. 5. 26.).

57) 央视新闻(2026. 5. 15.), 「如何理解“中美建设性战略稳定关系”? 专家分析」,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3182762?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 5. 26.).

58)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6. 5. 18.).

59) 2012년 이후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国关系, New Type of Major-Country Relations)'는 강대국 간 관계가 과거의 패권 경쟁이나 충돌의 역사에서 벗어나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관계 모델을 의미함. 중국의 시각에서 신형대국관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기존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양국이 대결이 아닌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는 외교적 구상으로, △ 충돌·대결 회피, △ 상호 존중, △ 협력과 공영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였음. 중국이 제기한 신형대국관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용한 바 없음.

정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대만 문제나 국제관계 등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임.

-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간 구조적 갈등을 해결한 대타협이라기보다는 경쟁을 통제하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된 경쟁’ 체제로 전환했다는 제한적 의미를 지님.
 - 이는 바이든 시기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전략적 경쟁과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보다 거래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양상을 지닌, 양자 협상을 통한 ‘관리된 경쟁(managed rivalry)’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⁶⁰⁾
 - 향후 미·중 관계는 충돌 방지와 위기관리에는 협력하되 전략경쟁은 지속하는 이중적 구조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음.
- 양국 모두 당장의 충돌보다는 전략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으며, 이번 회담은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한 관계 안정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재정 부담, 국제분쟁 등 정치·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중국 역시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디플레이션 압력,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 [경제협력 확대와 제한적 성과]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무역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경제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나, 협력이 거래 중심의 제한적 성과에 머물렀으며 기술·산업 분야의 구조적 갈등이라는 근본적 난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냄.

- 양국은 2025년 10월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 및 부산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지속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농산물 교역 확대, 항공기 구매, 에너지 협력,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등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또한 일부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수출통제 조치 유예를 2026년 11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양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합의하였음.⁶¹⁾
-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성과는 과거 전략경제대화 수준의 포괄적 경제협력과는 거리가 있는, 거래 중심의 협력으로 제한됨.
 - 새롭게 설치되는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역시 거시경제, 산업정책, 금융개혁 등을 포괄했던 과거 협의체와 달리 무역 및 투자 분쟁 관리에 초점을 둔 제한적 협의체 성격이 강함.
- 경제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핵심 쟁점이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됨으로써 양국 간 구조적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
 - 이번 회담에서는 과잉생산, 산업보조금, 국가자본주의, 환율, 시장개방 등 기존의 핵심 경제 현안들이 논의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제를 의도적으로 뒤로 미룬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번 회담은 경제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라기보다는 제한적 협력 확대와 긴장 관리 차원의 성과에 머물렀으며, 향후 9월 정상회담에서 보다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60)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6. 5. 18.).

61)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6. 5. 20.).

■ [기술패권 경쟁과 경제안보 갈등 지속]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술안보 분야를 협력 영역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가운데, 반도체·AI·핵심광물을 둘러싼 경제안보 경쟁이 지속되고 향후 갈등의 범위가 제3국과 글로벌 공급망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줌.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AI,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첨예한 기술패권 경쟁 의제들이 거의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이 기술 분야를 경제협력과 분리해 별도 트랙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기술 경쟁, 디지털 인프라, 사이버 안보 등 양국 관계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들이 양측의 공식 발표에서 명시되지 않고 제한적으로 언급되는 등 미·중 경쟁 쟁점, 특히 기술안보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⁶²⁾
- 핵심광물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경제안보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CHIPS 법」, 국방부 기금, 에너지부 자금 등을 활용하여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대중 의존도 축소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영향력을 활용하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반도체와 AI뿐 아니라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광물을 둘러싼 경제안보 경쟁이 향후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동맹국을 활용한 수출통제 공조를 강화하려 하며, 중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속하고 있어서, 향후 갈등은 미·중 간 직접 충돌보다 수출통제, 공급망 규제, 기술협력 제한 등을 둘러싼 제3국 압박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반도체와 AI 공급망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양측의 정책 압력에 동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대만 문제] 대만 문제는 여전히 미·중 관계의 최대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양국 간 인식 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전략적 안정 관계의 유지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만 문제를 가장 중요한 핵심이익으로 재차 강조했던 것으로 볼 때 대만 문제는 여전히 미·중 관계의 최대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의 행동을 억제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 안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기존의 현상 유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회피하였음.
-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중국 발표문에서는 대만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지만, 미국 발표문에서는 관련 언급이 사실상 배제되어 양국 간 인식 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 이는 양국이 '전략적 안정'에 합의했음에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해소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며, 특히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의회의 친대만 입법, 고위급 교류 확대 등은 향후 언제든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음.

62) CSIS(2026. 5. 20b), "What the Trump-Xi Summit Revealed, and Left Unsaid, About U.S.-China Tech Competition," <https://www.csis.org/analysis/what-trump-xi-summit-revealed-and-left-unsaid-about-us-china-tech-competition>(검색일: 2026. 6. 2.).

- 경제 분야에서는 일정 수준의 타협이 가능하더라도 대만 문제는 양국이 양보하기 어려운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여부는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 [9월 정상회담의 중요성 부각]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관계의 안정적 재정립이라는 진전을 이뤄냈으나 경제·통상 등 핵심 의제에서 큰 진전 없이 제한적인 성과에 그친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선거 직전에 개최될 9월 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선거와 대중국 견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미국은 주요 선거를 앞두고 대중국 견제 정책을 점차 강화한 바 있음.
 - 2018년 중간선거(2018. 11) 직전까지 1~3차에 이르는 대중국 제301조 관세를 2018년 7~9월에 걸쳐 부과한 바 있음.
 -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20년에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긴장 완화가 기대되었으나 이후 미국이 대화웨이 수출통제 강화(2020년 5월 및 8월)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2022년 중간선거(2022. 11)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전례 없던 대중국 광역 반도체 수출통제를 시행한 바 있음.
 - 미 의회나 대중(大衆)에게 대중국 견제 강화는 여전히 지지도가 높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산에서의 합의사항이 중간선거(2026. 11. 3)와 매우 근소한 시점에 만료(2026. 11. 10)되어 중간선거 직전에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매우 큰 주목도를 가질 수 있음.
- [대중국 견제 강화의 어려움] 다만 중국은 미 행정부의 조치가 거둬들일수록 대미 수출 의존도를 축소하고 미국 수출통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 방법을 정립해 이전에 비해 중국의 반작용을 미국이 무시하기 어려움.
 - 대중국 견제 강화가 선거 전후로 재등장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노출한 약점이 먼저 보완되어야 하며, 미국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맹국과 협력하는 형태의 견제 정책에 나서야 할 수 있음.

표 5. 향후 미·중 갈등 전개 방향 전망

분야	미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선결 조건	갈등 전개 방향
관세	· 미국 내 물가 상승 억제 · 낮은 국채 금리 및 금융 시장 안정	· 러·우 전쟁 및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 새로운 갈등 상황 발생, 미 국채 프리미엄 하락 시 중국과의 새로운 관세 전면전은 어려울 수 있음.
경제 안보 조치	· 미국의 자체적인 노력 혹은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 희토류, △ 갈륨, △ 게르마늄, △ 안티모니, △ 흑연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 축소 · 업계 반대를 무마할 수 있는 별도의 인센티브 제시 혹은 정치력 확보 · 대중국 견제에 대한 동맹국 협조 확보	· 영구자석 및 핵심광물 13종에 대한 미국 내 생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나 단기간에 대중국 의존도 축소는 어려울 수 있음. · 미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방식의 수출 통제 지속은 업계의 반대에 직면 · 제3국을 미국식 수출통제와 동조화하려는 간접적 수단 강구 ·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및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공동 대응 협력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음.
공통 사항	· 대중국 견제 강화에 대한 여론 및 의회의 지지	· 미국 대중(大衆) 및 의회에서는 대중국 견제 강화에 대한 지지도가 높음.⁶³⁾

자료: 저자 작성.

- [미국의 전략자산 비축과 대중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추진] 미국은 대중국 견제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희토류 및 핵심광물 비축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국과 함께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에 맞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제3국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무부의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기금, 국방부 기금⁶⁴⁾ 및 에너지부 LPO(Loan Programs Office) 자금을 동원해 대중 희토류·핵심광물 의존도 축소와 공급망 강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핵심광물 가격하한제와 공동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이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 특히 미국은 직접적인 대중 제재가 어려울 경우 동맹국의 협조를 구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으며, 이미 미국 의회는 「MATCH Act」, 「STRIDE Act」 등을 통해 동맹국이 미국식 수출통제에 동조하도록 독려하는 법안을 논의 중임.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나 AI 행동계획에서도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다른 국가들을 동참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맞서 중국은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이나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 등을 발표하며 자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것임을 예고함.
 - 결과적으로 미·중 간 직접적인 경제안보 조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더라도, 미국의 수출통제 역외적용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법적 조치가 충돌하면서 제3국 규제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촉발될 수 있음.
-
-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 안정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한국에 긍정적이나, 기술·경제안보 분야의 경쟁이 지속되는 만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상시 대응과 원칙에 기반한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중 관계 안정화로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이 감소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이번 회담이 갈등 해소가 아니라 관리에 초점을 둔 것이므로 미·중 경쟁 자체가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무역전쟁 재격화 가능성이 일정 부분 낮아지고 양국 간 소통 채널이 확대된 것은 한국 경제에 우호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반도체, AI,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은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한 상시 대응이 여전히 중요함.
 - 희토류와 핵심광물과 관련해 여전히 양국 간 구체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며, 디지털 인프라, 사이버 안보 등 양국 관계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⁶⁵⁾
 - 따라서 핵심광물 확보, 공급망 다변화, 첨단기술 자립도 제고 등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63) 다만 2023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미국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Silver and Clancy(2026.. 4. 14.) "Americans' views of China have grown somewhat more positive in recent years."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6/04/14/americans-views-of-china-have-grown-somewhat-more-positive-in-recent-years/>(검색일: 2026. 5. 27.).

64) 「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로 국방부에 약 75억 달러의 기금이 주어짐.

65) CSIS(2026. 5. 20b).

- 미·중 경쟁이 제3국을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도체와 AI 공급망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은 양측의 정책 압력에 동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므로 특정 국가 편향이 아닌 일관된 원칙에 기반한 경제안보 전략이 필요함.
- 한국은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및 첨단기술 동맹에 참여하되 동맹 참여가 직접적인 대중 견제 조치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중국과의 협력 역시 미국의 반도체·AI 관련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교하게 추진하는 전략이 요구됨. **KIEP**